

아주대의료원소식 5

2004

통권 제 112호 / 발행일 2004. 5.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효철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변모하는 아주대학교의료를 지켜봐 주십시오
- 3 **아주대 이야기**
목수가 뼈수술 해도 되나요?
- 4 **특이한 소문**
아주대 의대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 6 **내일 위해 내일 할 일**
해이 없는 세포, 혈소판을 위하여
- 7 **당분 손 안 잡아**
환자는 거짓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 8 **사랑의 봉사 활동**
아주대학교의료가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 10 **건강교섭기**
몸 쇠면 건강도 조인다
- 12 **장기이식술**
만성 신부전 치료비용 얼마나 드나요?
- 13 **ASACASAS**
- 18 **건강교섭기**
올바른 피임법 알고 계세요?
- 20 **건강교섭기**
목에 뭔가 걸린듯... 인후두 역류질환 의심!
- 21 **건강교섭기**
딸 아이 앞니가 뿌리채 뽑혔어요
- 22 **2004년 4월 20일**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 예찬
- 24 **병동 이야기**
10층 동병동
- 26 **내일 건강상식**
매일 재는 혈압, 이것이 궁금합니다
- 27 **연예병사**
삼성신부인과병원
- 28 **건강교섭기**
후두암
- 30 **건강교섭기**
소녀
- 31 **건강교섭기**

아주대의료원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아주대학교의료가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6일 수원시와 함께 「2004년도 수원시 노인정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6일 장안구 한화아파트 노인정을 시작으로 연간 47회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또한 지난 4월18일 일요일 수원시 지동 제일교회에서 의료봉사단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을 무료로 진료하였습니다.

모두 의료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의료원은 경제적,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아주대학교의료를 찾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의술을 펼치는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원 내 영화동아리는 지난 4월10일 영유아 보육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했고, 사격회 동아리는 광교산 자연보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모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지난 4월16일 금요일 병원 별관 증축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증축공사에 들어갔다.

병원 별관 건물은 지난 98년 2월21일 준공되어 행정부 사무실, 전공의 숙소, 의과대학생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임상역학센터, 산업의학과, 대강당, 계단식 강의실, 휴게실 등을 수용함으로써 병원내 많은 공간을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진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아주대학교병원원은 이번 별관 병원 증축에 따라 더 많은 진료공간과 숙소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사는 서측 3층을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로, 증축된 서측 2개층은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1층에 위치한 행정부 사무실이 2층으로 이동하면, 1층 전체를 진료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병원 별관 증축은 점점 늘어가는 쾌적한 진료공간에 대한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 의료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진료 및 연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별관 증축을 시작으로 응급의료센터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가 확장되면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될 것이며, 별도의 연구동을 지어 대학병원으로서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및 교육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신도시 제 2 병원 건립 등을 검토해 앞으로 탁월 의료시장 개방,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 혹은 재벌병원의 분원 건립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을 맞는 2004년 올해 시행되는 이번 병원 별관 증축이 탄탄한 구성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수가 뼈수술 해도 되나요?

『목수가 뼈수술을 해도 될까요?』
『사용하는 연장은 비슷해도 절대로 안되지요?』
『수술실을 들어가 보니 수술도구가 정말 비슷하던데요?』
『그렇다면 약국 바쁘다고 포장이사센터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무슨 드라마의 대화내용으로 오해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의학·의료계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의사가 되는 길은 참으로 힘든 것 같다. 착실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소위 모범생인 것처럼 참으며 중·고등학생을 보내고 힘들게 경쟁하여 의과대학에 들어오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보다 강도 높고, 멀고 먼 고지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의사면허번호를 받는다. 1.4 후퇴때 보다 춥고 배고프며, 가끔씩은 절망하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뿌듯한 희망을 가지고 계약직도 아닌 힘든 일용직 수련의 생활이 시작된다. 물론 나의 고생, 고통과 손으로 아주 힘든 길을 오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기쁨은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 교수가 되든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를 자청하고 일차진료의 일꾼이 되든 모두 가치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러던 중 희안한 사실을 접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깨우치고, 경험으로 습득하고, 원칙과 근거(evidence)를 찾아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의사말고도 「의료행위」와 유사한 것이 너무 많고, 오히려 이러한 유사의료가 전통의료 보다도 때로는 인정받고 경제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진료를 가며 헬리코박터 필로리균과 싸우는 동안 모 유제품 회사제품은 국민적 신망을 얻고 더불어 이 군에 관련된 질환의 치료비용보다 더 훨씬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생물학, 분자의학, 세포생물학, 유전체학 모두는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 분자학이라는 퓨전(fusion)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퓨전에서는 임상적인 면과 의학적인 면보다 기초가 되는 세포 및 분자생물학이 더

나서게 되며 급기야 정부의 수백억이 넘는 질병치료를 위한 바이오 연구 및 바이오산업은 의사 보다는 의사가 아닌 분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의사든 의사가 아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나판은 분명한 사실은 의사가 아닌 분들은 들어서, 읽어서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의학을 접하게 되지만 의사들은 오랜 기간 고생하여 경험하고, 느끼고, 밝혀내서 접하게 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나는 매우 초조했었다. 왜냐하면 유명 과학자께서 수년전 정부의 매우 큰 과제를 시작하며 위암, 간암은 머지 않아 정복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시사한다고 본다. 우리 의사가 꼭 진료실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의사가 진료실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나 진료실 밖으로 더 많은 우리 후배 의료인이 다가가야 한다. 바로 中醫治人(중의치인) 또는 大醫治國(대의치국)을 실현해야 할 것 같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해야 하겠다.



함기백 교수 / 간 및 소화기 유전체 연구센터 소장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아주대 의대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 위 상징물은 십이지간에 의술을 상징하는 뱀과 지팡이를 형상화한 것으로 의과대학(송재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다.

1990년 의과대학의 3개 학년 학생 강의가 아주대학교 본관 강의실을 빌려 진행되었고, 교수들은 몇 명의 조교들과 함께 역시 본관의 3개 교수실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초창기 의과대학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 아주대학교의 주인이며, 특히 재정적으로 대학교 운영을 뒷받침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재단법인 대우학원이다. 재단의 실질적인 경영인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게 당시의 현실이었고, 이러한 강력한 뒷받침에 힘입어 아주대학교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1989~1990년 사이에 대우그룹 전체가 재정적 난관에 봉착하였고, 김우중 회장은 옥포에 상주하면서 대우조선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서울역 앞 대우본부 건물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나돌던 시기이고 보니, 재단의 김준엽 이사장이나 대학교의 김효규 총장이 김우중 회장께 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본다. 따라서 신생 아주대 의대가 초창기에 재정적 「공핍」 상태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가히 짐작되리라 믿는다. 그 시절 우리 의과대학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돌아볼 때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3학년 학생들의 해부학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습용 시구(屍體)를 구하지 못해 연세대 의대 해부학교실의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부산에 있는 시구를 가져오기 위해 이영돈 교수가 직접 응급차(원래 응급차는 시구 운송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했다)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해부실습은 본관 밖 조그마한 임시 가건물에서 진행되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학생들이 진흙탕을 엉금엉금 기다시피 했고, 일부 학생들은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환경이 아주 열악했다. 일부이긴 하지

만 생리학, 생화학 실습기구를 본교 자연과학대학이나 타 대학에서 빌려와 쓰기도 하였고, 약리학 실험 실습을 위해 주일로 교수는 실험 기구는 물론 실험 재료인 토끼까지도 자신의 승용차로 실어 날라야 했다.

당시 본교에서 출발하여 수원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보통 45분이 소요될 정도로 서울과 수원엔 「멀고도 먼 곳」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강의를 타 대학교 교수진의 도움과 참여로 진행되었다. 그 무렵 경인지역에 있는 타 의과대학에 출강해서 받는 강사료에 비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수고하심 보답으로 겨우 타 대학의 1/2 또는 1/4 정도밖에 드리지 못했다.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신생 의과대학의 첫걸음은 어려웠으나 초창기에 참여한 몇 안되는 교수진과 조교진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주축이 되고, 그 위에 우리 대학의 가능성을 믿고 많은 인내력을 가지고 따라준 우리 학생들이 있었기에 그 시기의 엄청난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올 수 있었다고 믿는다.

대학 재단을 비롯한 대학교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열악한 외부환경이 심히 염려스러웠기에 우리 의과대학 건물이 과연 언제 지어질 것인지 암담하였다. 그러나 우리 의대 건물의 신축 사업은 예상을 깨고 신속히 진행되었다. 1990년 1/4분기 신축 공사가 시작된 후 1991년 10월까지 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4층까지의 건물이 우선 신축되었다. 이런 성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주)대우건설이란 거대 건설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계를 맡은 (주)서울건축과의 합심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설계 도면을 완성하려면 원래 반년 또는 1년이 걸리기 마련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른바 Fast Track System 이라고, 일부 설계 도면을 그려 공사 현장에 넘기면 곧바로 공사가 시작

되는 방식을 취했다. 물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주)서울건축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김종성 교수의 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당시 김우중 회장의 뜻을 받아 건설을 시행하고 공사현장을 책임진 (주)대우건설이 있었기에 더욱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의과대학 건물의 1차 건설공사가 마무리되어 의대생들은 드디어 자신들만의 배움터를 그것도 여유롭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우아한 공간을 갖게 되었다. 기뻐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교수진의 마음은 그저 흐뭇하기만 하였다. 그런데 정작 더 기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들이었다. 열악한 신생 의과대학에 자식을 보낸 학부모들도 당시 대우그룹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미래를 염려하기는 마참가지였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학을 지켜보다가 1991년 10월, 마침내 신축 의학관 준공과 아주대학교병원 기공식을 참관하면서 그간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하고 누구보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이에 힘을 입어 첫회 졸업 예정자들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기성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그 첫 성과물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의 문화공간인 선인재(善仁齋)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돌이켜 보면서 열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주변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 동료 교수진, 신생 대학의 첫 입학생으로 타 대학처럼 선배도 없이 외롭게 공부하며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도 인내력으로 대학 운영지침을 묵묵히 따라준 학생들, 신생 의과대학을 적극 도와 주신 故 김효규 총장을 비롯한 본교 교수들과 직원들, 미안해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 재단법인 대우학원 김준엽 이사장, 의과대학 건물 및 대학병원 건물의 설계를 주관하면서 우리 의료진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수용해 주신 (주)서울건축의 대표이사 김종성 교수 그리고 큰 버팀목으로 아주대학교는 물론 오늘의 의료원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외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성낙 석좌교수 / 피부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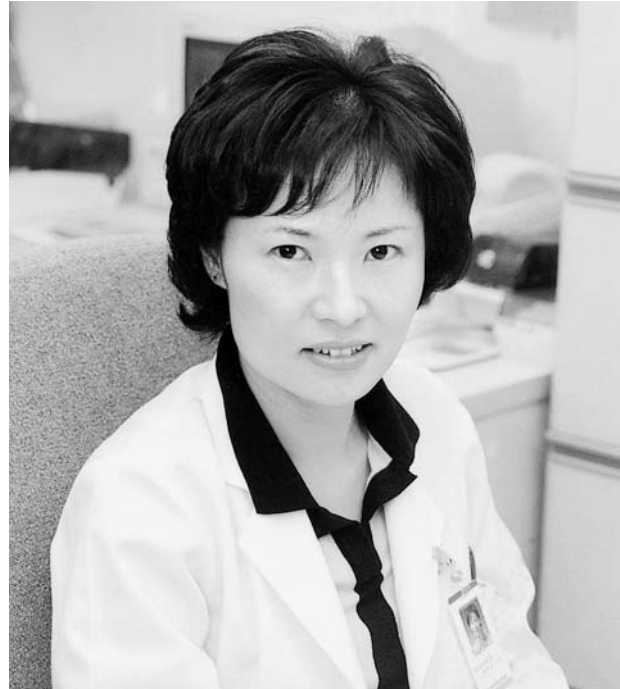
핵이 없는 세포, 혈소판을 위하여

질문 소판은 혈액내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세포지만, 정상적인 세포가 갖추고 있어야 할 DNA 유전자 정보가 담겨있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시에는 가장 먼저 혈관의 출혈 부위에 부착하여 일차적인 지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는 혈관을 막는 혈전증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과 관련이 있기도 하는 중요한 혈구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기능을 검사실에서 손쉽게 측정하여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왔었다. 내가 연수하였던 기관은 미국 샌디에고의 Scripps Research Institute의 Molecular and Experimental Medicine(분자실험의학) 건물의 Experimental Hemostasis and Thrombosis(지혈 및 혈전) 연구실이었다. Scripps Research Institute는 「라호야」라는 아름다운 휴양도시에 위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부러움을 살 만했는데, 2001년과 2002년 연속 노벨화학상 수상자 배출은 그 연구소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내가 늘 근무하고 일하던 곳이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연구실보다는 연구 전문기관의 연구실을 방문하고 싶었던 점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햇빛만큼이나 강하게 이곳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됐다.

나의 지도교수는 거대핵세포 형성을 조절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지혈 및 혈전의 과정에서 혈소판 당단백 막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작된 여러 종류의 당단백 결핍 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내가 진행하였던 연구는 혈소판 당단백(Glycoprotein, GP)중 GPIIb/IIIa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 쥐와 GPIIb/IIIa 결핍 쥐의 혈소판을 분리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후 2-dimensional electrophoresis라는 비교적 첨단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 쥐들의 혈액이 필요하였는데, 특히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GPIIb/IIIa 결핍 쥐의 혈소판에서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정상 쥐에 비하여 5배 이상의 혈액이 더 필요하였다. 나에게 여러 차례 실험 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가져다 주었던 검사실 직원은 늘 「Good luck!」과 함께 헌혈도중 예기치 못하게 순직(?) 쥐들



에 대한 정보도 잊지 않고 전해주곤 하였다. 가끔은 골수에서 거대핵 세포를 추출한 후 쥐들을 처리하고 있으면 내 앞 벤치에 자리잡은 이 태리 여사는 「꼭 실험할 때 쥐들을 이용해야 하느냐」며 마음 아파하곤 하였다. 한 연구소 동료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년에 한 번은 연구소 앞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반대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이 사실은 나처럼 이 연구소를 잠시 방문하는 연구자에게도 안전 및 방사선 동위원소를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교육과 더불어 4시간 이상이나 동물 실험에 대한 기법과 윤리에 대하여 매우 철저히 교육한다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유있는 연구비, 풍부한 외국인 연구 인력과 더불어 자유로운 언어구사로 우리보다 쉽게 세계적인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미국의 연구계 뒤에는 단순히 여건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체계가 우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임 영 애 교수 / 진단검사의학교실



환자는 거짓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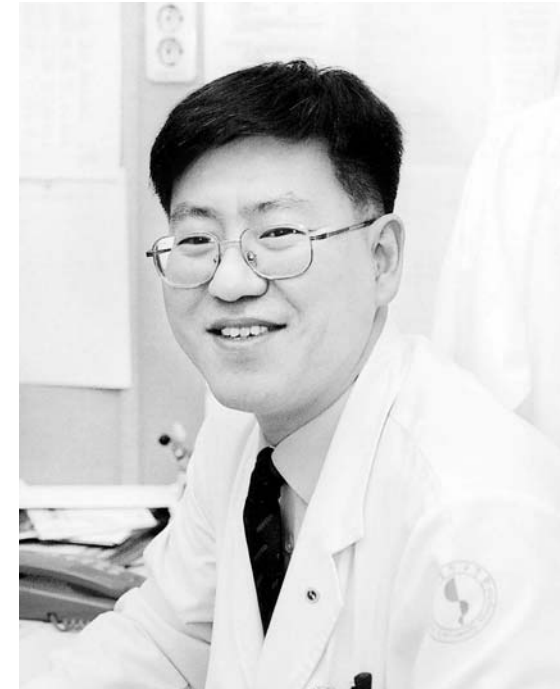
나는 환자를 대할 때 항상 되내이는 것이 하나 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는 거짓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과거 전공의 시절이나 현재도 외래 환자를 대할 때나 입원 환자를 치료할 때 그리고 전공의들과 함께 환자에 대해 고민할 때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유념하는 말이다.

수년전 교통사고로 신장이 다쳐서 입원한 30대 부인이 있었다. 이 환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소변에 피가 나오고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신장이 파열된 것으로 진단된 환자였다.

신장이 파열되면 신장에서 피가 흘러나와 신장 주위 및 장을 둘러싸고 있는 복막 뒤쪽에 피가 고이게 된다. 이 부분들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가 난 뒤에는 눌러서 압력으로 피가 멈추게 되고, 많은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안정 가료함으로써 신장 파열을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는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옆구리도 심하게 아프면서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다. 이때 피가 많이 고였으면 수혈을 해서 피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물론 신장 파열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수혈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열도 떨어지면서 환자가 안정된다. 그 뒤 1~2개월 동안 안정을 취한다.

이 환자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적인 신장 파열 환자처럼 통증이 심하였으며, 수혈을 하였고, 일주일 후에는 피검사에서 출혈이 멈춘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정도였다. 환자는 30대 초반으로 상당히 말랐고, 인상에서 성격이 날카로워 보였다. 경험적으로 이런 환자



들은 비교적 증상 호소가 지나친 경향이 있었다. 검사상 통증이 적어질 때가 지났는데도 환자가 계속 통증을 많이 호소하여 다시 컴퓨터단층촬영을 하고 2차적으로 염증이 생겼는지를 검사하였는데 신장 파열은 안정화되어 있었고, 염증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우리는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통증을 좀 참아볼 것을 요구하였고, 환자는 심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요구하여 수일간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계속하였다. 계속 통증이 심하여 다른 검사로 신장의 혈관상태를 보는 신혈류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신손상으로 인한 동맥과 정맥사이의 이상 혈류가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 이 이상 혈류가 신장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응급으로 신동맥촬영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피의 흐름을 막는 치료(색전술)를 하였고 환자의 증상은 이후 약간 좋아졌다.

환자는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상 혈류(통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를 막은 후에도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였고 진통제 때문에 계속해서 다름이 있었다. 환자는 퇴원 후 외래에서 약 1년간 통증이 있다, 식사를 못한다, 구토가 있다 등의 많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하였으나 다른 원인은 찾지 못했다.

환자가 지나치게 통증에 예민하였는지 혹은 원인 때문에 많이 아파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는 거짓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란 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환자였다. 이제는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실 것으로 믿는다.

안 현 수 교수 / 비뇨기과학교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지난 4월18일 일요일 오후 수원시 지동에 위치한 제일교회 안에 임시로 준비된 진료소에는 예매가 끝난 후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외국인 근로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여 준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 용인, 오산, 화성, 천안, 대전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몰려든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진료 예정시간인 2시30분 의료봉사단들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기실·접수창구·혈압측정대·진료실·약국·검사실 준비를 끝냈다. 드디어 진료가 시작되자 한두 명씩 진료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들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대기실은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로 가득차고, 의료봉사단들의 손놀림과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를 받기 전 접수창구에서 차트를 만들고, 혈압측정 후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내과(중앙·혈액내과 김효철 교수, 순환기내과 최태영 교수), 외과(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이비인후과(김철호 교수), 안과(안재홍 교수), 치과(고석민 교수)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진료 후 약 처방, 체혈·소변검사, 심전도 검사, X-ray 검사 등이 이뤄졌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매 창구마다 통역을 통해 진료가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다소 혼잡했지만 누구 하나 불만없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료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진료를 끝내고 나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얼굴에는 처음 임시 진료소를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이 어느새 환한 웃음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

들로 지칠 법도 하지만 의료봉사단들의 얼굴은 보람으로 가득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83명이었으며, 내과진료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화불량, 가슴통증, 관절통, 외상, 시력저하, 귀질환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무조건상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했던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무료진료를 무척 반가워했다.

이날 봉사단장을 맡았던 안과 안재홍 교수는 『수원을 중심으로 인근 경기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기피되고 있는 3D 업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질환, 외상 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가한 김효철 의료원장은 『간혹 TV나 신문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혹은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소식이 소개될 때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하면서 『아주대학교의료원 10주년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직원들은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외국인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몸 죄면 건강도 조인다



간혹 일상생활에서 해오던 작은 생활습관이 자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몸을 죄는 일이다. 옷 맵시를 위해 목도 조이고, 가슴도, 허리, 다리도 조인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러한 조임으로 인해 갖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몸을 조이면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의로부터 알아본다.



한 남자의 70%에서 안압이 상승하였다. 또한 넥타이를 조여맨 경우 안압을 검사하는 동안에 녹내장이 아닌데도 녹내장으로 잘못 진단될 가능성도 있다. 조여맨 넥타이에 의해 목의 정맥을 누르게 되어 혈압을 올리며, 결국 안압을 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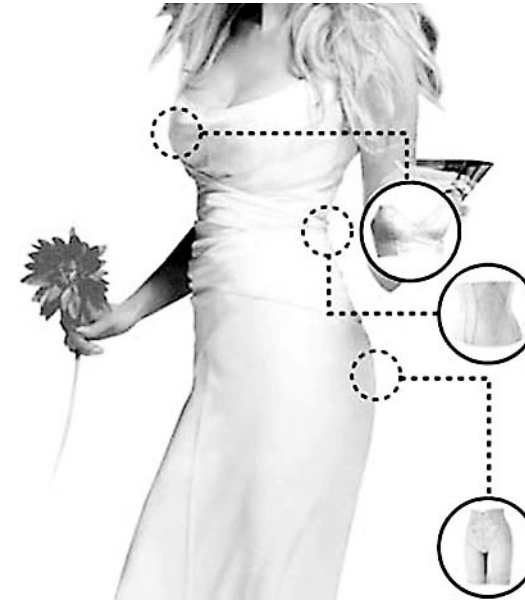
서 있는 동안 적절히 허리 크기에 맞게 되어있는 거들의 경우 앉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는 더 그러하다. 앉아 있게 되면 서 있는 경우에 비해 흉부가 4~5cm 정도 더 확장된다. 구부릴수록 흉부는 더 확장되며, 흉부가 확장될수록 거들로부터의 압력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흉부가 압박되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불편함이나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허리 크기에 맞는 거들을 구입해야 한다.

거들 및 코르셋 등이 주는 어느 정도의 압력은 변의 자연스런 배출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코르셋이다. 허리모양을 날렵하게 보이게 하고 가슴을 받치는 기능을 동시에 하는 코르셋을 사용하는 경우 복부 장기들을 아래쪽으로 밀어내어 하복부 팽창을 일으키지만, 코르셋에 의해 하복부 벽의 팽창이 억제되어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 조여진 압력에 의해 국소적인 혈액순환의 문제, 신경과 피부가 눌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코르셋에 의해 통증이 있을 정도로 불편감이 나타나더라도 참는 경우로, 심하면 누골 골절, 변비 등이 생길 수도 있다. 대장의 경우 횡행 결장에서 눌리는 문제와 변이 통과하기에 각이 높아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코르셋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수개월 동안 착용하는 경우 누골의 모양 변형이 일어나 흉곽 형태

넥타이를 조여매는 경우 녹내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조여맨 넥타이는 눈의 혈압을 올려서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시력 소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정상인과 녹내장 환자 모두에서 조여맨 넥타이는 안압을 올려서 녹내장 발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각각 20명의 건강한 남자와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넥타이를 조여맨 경우 녹내장 환자의 60%, 건강



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일년 안에 코르셋을 제거하는 경우는 원래의 흉곽 형태로 돌아간다.

또한 코르셋의 착용은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코르셋을 착용하면 척추 전체가 하나로 고정되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척추는 각각 하나 하나의 관절들의 움직임이 모여 구부리기, 허리 재치기 같은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코르셋을 착용하면 자연스런 동작이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코르셋을 착용하게 되면 엉덩이를 내밀고 등을 뒤로 제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무릎,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 피로하고 아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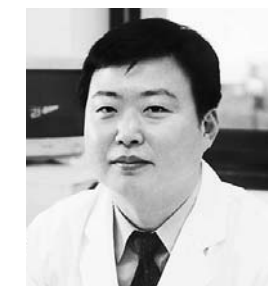
거들과 브래지어 착용이 배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거들을 입은 학생의 배변량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적었다. 또 먹은 음식이 배변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다. 또 가슴을 붓글 올려주는 「보정 브래지어」를 일주일간 입히고 같은 실험을 했다. 역시 브래지어를 착용한 일주일간은 배변량이 줄었다.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자 배변도 정상시로 돌아갔다. 꼭 끼는 속옷이 변비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꼭끼는 옷을 입으면 부교감신경의

움직임이 둔해져, 작은 창지에서 음식물을 부쉬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액의 분비도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배변량이 줄며 변비가 생기기 쉽게 된다.

꼭 끼는 속옷이나 겹옷을 지속적으로 입으면 고무줄이 닿는 허리나 팬티 라인에 거무스름한 색소 침착이 있을 수 있다. 또 팬티선을 중심으로 가렵고 붉으면 붉어지면서 좁쌀같은 것이 피부에 돌아나는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이 생기기도 한다.

외음부나 질이 가렵고 분비물이 나오는 칸디다증, 음부탈모증, 곰팡이균에 의한 완선, 팬티 고무줄이 닿는 부분에 줄이 생기고, 가려워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피부묘기증, 털이 나오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모낭염 등도 팬티를 잘못 입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집에서, 특히 수면때는 알몸으로 있는 것이 좋다. 알몸으로 자기가 어색하다면 팬티는 벗고 잠옷을 걸치는 것이 좋다.

여자들이 멋을 내기위해 입는 100% 면이 아닌 스판이나 나일론과 같은 신축성이 큰 삼각팬티는 건강에 좋지 않다. 남자의 경우도 건강을 위해서는 삼각팬티 보다는 혈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는 것이 좋다.



김 광 민 교수 / 가정의학과학교실

만성 신부전 치료비용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 신부전이라면 막연히 돈이 많이 드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감을 떨칠수 없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만성 신부전의 치료방법과 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따른 비용(환자 본인부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수행하는 기능, 즉 노폐물을 배설하여 체내에 축적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질환으로, 그 치료방법은 투석기를 통하여 신장기능을 대신하여 주거나 건강한 신장을 체내에 이식하여 환자의 신장기능을 대신하여 주는 방법이 있다.

투석기를 이용한 치료는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눈다. 혈액투석을 하려면 일정한 혈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큰 혈관이 필요해 보통의 말초혈관으로는 혈액투석을 시행할 수 없고 환자의 팔과 다리 등에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혈관을 굵게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한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인조혈관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복막투석은 환자의 복부에 특수 제조된 부드러운 도관을 삽입하여 이 관을 통하여 투석액을 주입하고 배액하여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한다 <표1>.

수술 후 혈액투석 환자는 1주에 3번, 1회 4시간씩 혈액투석을 하며, 복막투석은 한번에 2리터의 투석액을 1일 4회 교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표2>.

신장이식은 크게 뇌사자이식과 생체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생체이식을 하려면 기증자, 수혜자가 조직적합형사 등 이식전 필요한 검사를 한다<표3>. 이때 기증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는 모두 비급여로 하며, 이식수술 후에 보험으로 적용하여 차액을 돌려드린다. 검사결과 이식이 적합하다 판단되면 이식을 한다<표4>.

이식시 수혜자에게 급성거부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목적 및 비급여 해당대상일 경우 투여되는 주사(씨물렉트, 300만원정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뇌사자 이식은 이식수술에 필요한 여러가지 검사를 해두고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한다. 그리고 검진 및 투석을 받으며 대기하고 있다가 적합한 뇌사자가 나타나면 이식을 받는다<표5>.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식된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제거하려는 현상인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평생동안 복용해야 한다<표6>.

앞의 소개된 비용들은 아주대학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태의 신부전환

<표1>

항 목	보 험	급여 1종	급여 2종
혈액투석을 위한 자가동정맥류 조성술	100만원~170만원	75만원~90만원	95만원~100만원
혈액투석을 위한 인조혈관 조성술	150만원~180만원	80만원~90만원	95만원~110만원
복막투석을 위한 도관 삽입술	80만원~90만원	50만원~60만원	70만원~80만원

<표2>

항 목	보 험	급여 1종	급여 2종
혈액투석	45만원~55만원	만원 이내	만원~2만원
복막투석	40만원~50만원	만오천원~2만원	2만원~4만원

<표3>

구 분	보 험	급여 1종	급여 2종
기 증 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수 혜 자	15만원~200만원	30만원~100만원	120만원~150만원

<표4>

구 분	보 험	급여 1종	급여 2종
기 증 자	230만원~250만원	100만원~150만원	150만원~200만원
수 혜 자	600만원~750만원	350만원~450만원	500만원~600만원

<표5>

항 목	보 험	급여 1종	급여 2종
뇌사자이식전 검사	150만원~200만원	80만원~100만원	120만원~150만원
뇌사자이식 (기증자수술비 포함)	700만원~800만원	400만원~500만원	600만원~700만원

<표6>

항 목	보 험	급여 1종	급여 2종
면역억제제 투여	수술후 초기 150만원~200만원	80만원~100만원	120만원~150만원
이후	700만원~800만원	400만원~500만원	600만원~700만원

자들의 평균 소요비용을 제시한 것으로 환자별로 합병증 유무, 재원기간 등의 다양한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해마다 년초의 수가계약제에 의해 비용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원무팀 심사파트 ☎ 031-219-6946)로 문의하면 된다.

백 은 정 / 원무팀 보험심사파트

의료원 ▶▶▶

의료원 10주년 기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쳐 - 수원시 노인정 및 외국인 무료진료, 동아리 봉사활동 실시 -



의료원은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의료원은 수원시 보건소와 함께 「2004년도 수원시 노인정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추진, 지난 4월6일 장안구 노인정에서 첫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이동진료에는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노인성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가 참여하며, 주로 관절염, 근육통, 신체쇠약, 소화불량 등의 퇴행성 질병을 진료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은 4월18일 일요일 수원시 지동 제일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의료원내 기독교인인 신우회와 간호부의 봉사 소모임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외국인 무료진료는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간호부, 약제팀, 사회사업팀, 진료지원부서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충청지역에서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을 진료했다.

한편, 의료원 내 영화동아리는 지난 4월10일 광고산 주변에 위치해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경동원에서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영화동아리 회원들은 잡초 제거 및 정원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매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4회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지난 4월17일 토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별관대강당에서 4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월례회 1부에서는 개원 10주년 기념 엠블럼 당선자인 홍보팀 오은영 계장과 3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를 시상하고, 2부에서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교장이 「내리사랑 올리효도」라는 주제로 교양특강을 실시했다 3부에서는 오영택 기획조정실장보와 박명철 제2진료부원장이 10주년 기념 엠블럼 설명 및 의료원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활동 보고를 진행했다.

강원형 외래교수,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일천만원 기부

피부과 강원형 외래교수가 4월17일 지난해에 이어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강원형 교수는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22일에는 비뇨기과 정도영 외래교수가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의과대학 ▶▶▶



의과대학, 「200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 열어

의과대학은 지난 4월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200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의과대학 소개 및 교수와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과대학 학부모 초청 행사는 아주대학교 개교 31주년을 기념하는 「2004학번 학부형 대학방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김효철 의료원장 등 보직자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날 초청된 학부모들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왕희정 의학부장과 박지원 간호학부장으로부터 의과대학 전반에 관한 소개를 들은 후 ▲ 의학문헌정보센터 ▲ 컴퓨터 실습실 ▲ 학생실습실 ▲ 계단식 강의실 ▲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견학했다. 이후 의과대학 지하1층 선인재에서 있었던 리셉션에서는 교수와의 간담회 및 기성회 모임을 개최, 신규 기성회 임원 3명을 선출하는 한편, 학생복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박재운 아주대학교 총장은 『2004년 4월12일 개교 31주년을 맞아 각 가정의 자녀가 4년간 꿈과 희망을 키워갈 대학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인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한라대학교 「제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약 체결

의과대학은 지난 4월7일 승재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한라대학교 「제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과대학은 제주한라대학교 공동으로 「제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사연구, 안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과대학은 제주한라대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와 인적자원 교류,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을 위해 협력, 제주시가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지원키로 약속했다.



박해심 교수, 국제학술지에 연이어 논문 게재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박해심 교수가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환자의 진단에 유의미한 유전적 표지자, HLA DPB1* 0301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알레르기과 임상 면역학 분야의 최고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04년 3월호에 게재했다.

또한 국제 학술지 Human Genetics 2004년 3월에는 5-lipoxygenase(L0) 효소유전자의 일배체가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의 발병과 관련 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한편, 박해심 교수는 항생제 Cephalosporin제에 대한 약물 알레르기의 혈청학적 진단법을 개발하여 그 연구결과를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04년 4월호에 연이어 게재할 예정이다.

서창희 교수·윤영실 조교, 젊은 의학자상 등 수상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서창희 교수가 4월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48회 일본 류마티스학회에서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T-cell autoepitopes from MHC class II-bound self peptides in SLE-prone MRL/lpr mice」이다.

한편, 생화학교실 윤영실 조교는 지난 4월1,2일 태국에서 열린 「제2회 Conference of Asian Society for Mitochondrial Research and Medicine」에서 최우수 포스터 대상을 수상했다. 발표 포스터 제목은 「Functional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mitochondria during TGF β1-senescence-associated growth arrest」이다.

정운석·방오영 교수, 인명사전 등재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운석 교수와 신경과학교실 방오영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마르키스사에서 발간하는 후즈 후(Who's who)에 「의학 및 보건분야」 업적자로 등재될 예정이다.

정운석 교수와 방오영 교수는 오는 2004년 8월에 발간되는 2004년, 2005년 판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될 예정임을 최근 마르키스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연구소 ▶▶▶



뇌질환연구소, 제6회 아주 브레인 컨퍼런스 개최

뇌질환연구소(소장 김승업 석좌교수)는 지난 4월23, 24일 양일간 용인 에버랜드 힐사이드 호텔에서 제6회 아주브레인 컨퍼런스(The 6th Aju Brain Conference, ABC)를 개최했다.

「신경세포의 뇌(From Neuron To Brain)」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11명의 국내 연자와 5명의 일본 연자가 참여하여 사람 줄기세포에 의한 세포요법, 신경변성질환에서의 세포사, 기억과 학습의 기본 기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교수를 비롯하여 국제 대학원생, 연구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정보교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학재단 2004년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공모과제 선정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남동호 교수 / 비알레르기성 천식의 병인에서 자가면역 기전의 역할 규명 / 2004.1.1.~2007.3.31 / 25,000천원(1차/3년)
- 의과학연구소 최경숙 교수 / 항암제에 의한 mitotic catastrophe와 영구적인 세포 주기 억제를 조절하는 p21의 역할 및 세부기전 연구 / 2004.4.1~2005.3.31 / 25,000천원
- 미생물학교실 박선 교수 / Tin-3-1g 투여가 종양에 대한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 / 2004.4.1~2006.3.31 / 25,000천원(1차/2년)
- 미생물학교실 김경민 교수 /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백질의 발현과 증식을 위한 세포와의 상호작용 및 세포 변화 / 2004.1.1~2007.3.31 / 25,000천원(1차/3년)
- 소아과학교실 이수영 교수 / 팽공 알레르기의 생쥐 모델에서 Bifidobacteria 식이에 의한 Peyer's patch 세포의 항원 특이적 사이토카인 생산조절 효과 / 25,000천원
- 의과학교실 한상욱 교수 / Helicobacter pylori균 감염에 의한 위암 발생에 있어 Hepatocyte growth factor,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및 E-cadherin의 역할 / 2004.1.1~2007.3.31 / 29,800천원(1차/3년)

석의학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

- 뇌질환연구센터 이광 교수 /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연구 / 50,000천원
-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 / 사람 신경줄기 세포의 장기보존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립 / 50,000천원
- 정형외과학교실 민병현 교수 / 조직공학 제품의 동정, 함량, 역가시험법 및 특성 규명 / 40,000천원
-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 / 줄기세포의 분화조절에 관한 연구 / 50,000천원

사회사업팀, 전체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사회사업팀은 4월20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전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주대병원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이번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서울대병원 편익향상위원회 위원장 조학구 목사가 「늘 지금처럼」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실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강의에 이어 이상진 사회사업팀장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3.31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담석과 요로결석
3.31	경인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세계적인 인명사건 '후즈 후' 등재
4.2	중부일보	호흡기내과 신승수 교수	병원 독감, 눈병 환자로 '복직'
4.7	한겨레	정신과 신유미 교수	'집단따돌림' 빨리 눈치채 대처를
4.7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치아
4.14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턱 간절
4.21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여성 골반
4.22	경기일보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아이들 급성중이염 조심!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3.18	KBS 병원24시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태은이는 공주님
3.30	YTN 뉴스	호흡기내과 박주현 교수	황사시 호흡기질환 급증
3.30	SBN 뉴스	소아과 배기수 교수	학대아동 보호팀 출범 관련 인터뷰
4.3	KBS 뉴스광장	내분비내과 정윤석 교수	골다공증 환자에게 보험혜택 늘려야
4.23	YTN 백지연의 뉴스Q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병 친구들끼리 꼬마 마리톤
4.27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성장호르몬

병원



병원, 광교산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

병원은 4월23일 수원시가 주관하는 「범시민 광교산 자연환경 보호의 날」 행사에 참여 한데 이어 4월24일에는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교산 자연사랑 행사」를 갖는 등, 광교산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앞장 서고 있다.

「범시민 광교산 자연환경 보호의 날」 행사에는 김효철 의료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하여 광교산 일대 토양훼손지역 복원 및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한편, 사격회 동아리가 주관하여 실시한 24일 「광교산 자연사랑 행사」에는 교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가하여 새둥지 달기, 초롱꽃, 붓꽃, 백리향 등 야생화 심기 및 식목일에 식수한 잣나무를 기르는 등 광교산 자연보호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정신과, 우울증 무료진단 및 건강강좌 실시



정신과는 지난 4월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2004 정신건강의 날 기념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정신과 정영기 교수와 노재성 교수가 「주부우울증의 진단과 치료, 부부갈등의 해결」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고 주부우울증 무료진단을 시행했다.



영양팀, 불우이웃 돕기 위한 알뜰장터 열어

영양팀은 4월20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 앞에서 불우이웃돕기 알뜰장터를 열었다.

장애아동시설과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실시한 이번 알뜰장터에서는 영양팀에서 직접 만든 여러 김치류와 밑반찬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주사회사업팀

후원구좌 가입 안내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팀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올바른 피임법 알고 계세요?

피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임신에 피하는 것이다. 피임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각각의 피임법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다양한 피임법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으며 간편한 대표적인 피임법이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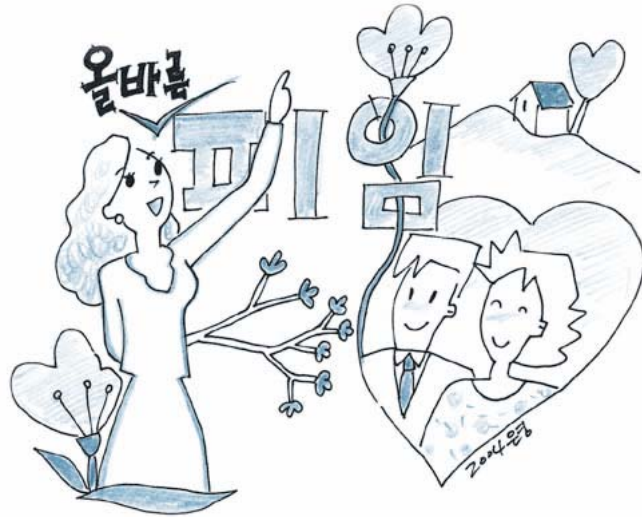
따라서 다양한 피임법 중 자신에게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피임법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자 한다.

■ 먹는 피임약

먹는 피임약은 두 가지 호르몬(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약으로 여성의 배란 및 생리를 조절한다. 피임약은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주기의 피임을 원할 때 그 주기의 월경이 시작되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먹기 시작하여 매일 한 알씩 먹어야 한다. 혹시 하루를 잊었을 경우 12시간 내 2알을 먹으면 된다. 2일 이상 잊은 경우에는 피임의 실패율이 높아진다. 한 주기용을 다 먹은 후 기다리면 월경이 시작될 것이다.

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인데 때로 심한 경우도 있으나 복용시간을 취침 전으로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피임약을 먹으면 임신 시와 비슷한 호르몬 상태가 되므로 몸이 붓고, 유방이 팽팽해지기도 한다.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복용시작 2~3개월 후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피임약을 먹다가 끊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배란 및 월경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90%에서 3개월 이내에 배란이 재개되며, 혹 3개월이 지나도 무배란, 무월경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병원에서 배란약을 처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된다.

또한, 피임약은 임신능력이나 기형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임약은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간편하고, 성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피임효과 이외에도 생리통을 경감시키고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조절하며,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생리량을 감소시켜 철결핍성빈혈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다. 고혈압, 당뇨, 간염, 정맥혈전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 등은 피임약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자궁내 장치(루프)

작은 기구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법이다. 자궁 안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통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 사막의 대상들이 긴 여행동안 낙타의 임신에 막기 위해 암낙타의 자궁에 작을 돌을 집어넣은 것에 유래한다.

루프는 보통 생리가 끝난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는다. 시술 후 장치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용으로 복통과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월경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15% 정도에서 과도한 월경량으로 인하여 루프를 제거하기도 한다. 염증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하나 루프에 동을 입히기 때문에 삽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궁은 무균상태가 되며, 2~3달 이후 생기는 염증은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골반염 등의 염증이 의심되면 루프는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자궁내 장치(미레나)

미레나는 자궁내에 넣는 새로운 피임장치로 피임 실패율이 낮아 불임수술과 견줄 만큼 우수한 피임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월경량과 월경기간을 감소시키고 생리통을 감소시켜 주는 이점이 있다. 미레나는 기존의 자궁내 장치(루프)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매일 일정한 황체호르몬을 자궁 내에만 분비시켜 작용하므로 특별한 전신적인 부작용 없이 우수한 피임효과를 나타낸다. 황체호르몬이 주로 자궁 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내막이 얇게 되어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막고 더불어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기간도 짧아진다.

■ 물리적·화학적 차단법

대표적으로 콘돔과 살정제가 있으며 요즈음은 여성용 콘돔도 나와 있다. 역사적으로 콘돔은 동물의 창자를 이용하여 만들었던 것이 기원이며 1840년대에 고무의 발명으로 보편화됐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콘돔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왕 찰스 2세의 주치의인 「닥터 콘돔」에서 유래했다. 당시 왕의 서자들이 더 이상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안해 내었던 것이거나? 아무튼 콘돔은 오늘날 피임의 도구일 뿐 아니라 성병의 전파를 막는 도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콘돔은 성교시 남성의 성기에 씌우는 얇은 고무봉지이며 이 안에 사정을 하게 되므로 정충의 질내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 정확하게 사용하면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피임 실패율이 15% 정도이다.

■ 자연 주기법

배란일 주변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질의사정을 이용하여 피임을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배란일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달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 방법은 월경이 규칙적이어야 가능하다.

어떤 주기에 피임을 하고자 할 때 다음 주기의 월경 시작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 후 거꾸로 14일을 빼 날이 배란일이다. 그러나 주기가 어느 정도는 변동될 수 있고, 정충이 나팔관 내에서 살아있는 기간이 3~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임해야할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실패율이 낮다. 자연 주기법은 여성의 배란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되는 방법으로 실패 확률이 높다.

■ 영구불임법

이는 단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출산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될 경우 하게 된다. 여성 측에서 나팔관을 묶는 방법과 남성 측에서 정관을 묶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난자와 정충이 만나서 수정란이 되어 자궁으로 향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나팔관이므로 이곳을 묶게 되면 난자와 정충이 만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남성의 정관을 묶는 것은 정충이 나오는 길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정관은 피부 바로 밑에 지나므로 수술이 간단하고 역시 입원이 필요 없다. 일단 단산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아기를 원하는 경우 풀어주는 복원수술을 해야만 한다. 복원수술은 까다롭고 성공률도 높지 않아

(여성의 경우 약 60% 정도) 단산수술을 선택할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응급피임법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즉 성교 직후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을 응급피임법이라고 한다.

응급피임법에는 응급피임 약제를 복용하는 방법과 자궁내장치(루프)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응급피임 약제는 성교 후 72시간 내에 고용량의 복합호르몬제를 12시간 간격으로 2회 복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호르몬제의 종류와 용량이 개선되어 1974년에 최초로 기술된 이래 1996년 미국 FDA에서 승인된 몇 가지의 처방법으로 응급피임법이 정착되었다. 이는 전문 의약품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 피하주입술(임플라논)

임플라논은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임플란트로서 상박부 안쪽,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는 이식형 피임제로서 장기간 피임효과를 유지하고, 제거 시에는 바로 가임능력이 회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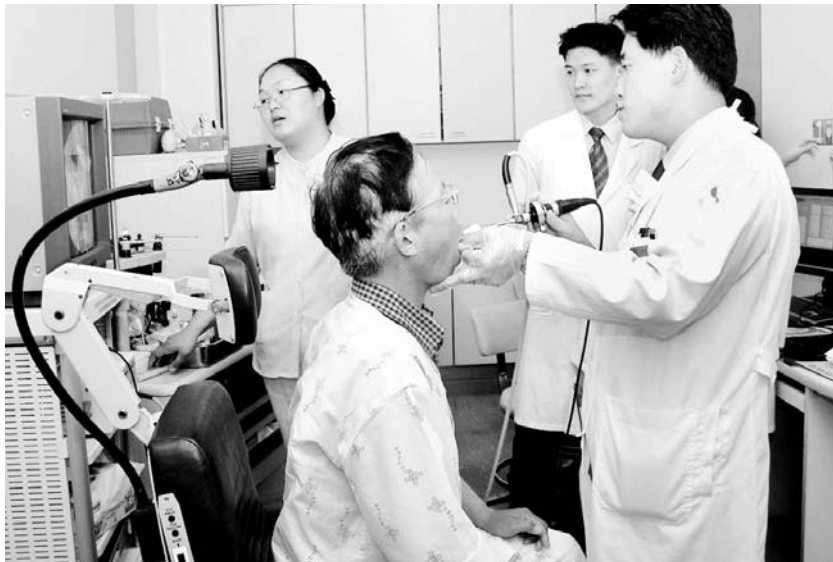
임플라논은 임플란트는 황체 호르몬을 함유하고, 여기에서 매일 극소량의 황체호르몬이 배출된다. 임플라논은 장기간 피임을 원하는 여성 모두에게 사용이 적합하다. 직장을 위해 첫 임신을 미루거나, 터울조절을 하는 경우, 더 이상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임플라논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미란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목에 뭔가 걸린듯 ... 인후두 역류질환 의심!



자들을 괴롭힌다. 재발의 주원인은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 카페인 음료, 과도한 스트레스, 피로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역류한 위산과 소화액이 후두 점막의 보호층을 파괴하면서 후두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발표하여 경각심을 더욱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완치를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평소 식·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위산의 역류를 억제하고 후두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말고, 과식하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 음료, 초콜릿, 박하, 과음도 좋지 않다. 생활습관으로는 금연, 딱 조이는 옷이나 벨트를 피

하고,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취침시 15cm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간혹, 소아에서 성인과 같이 인후두 역류질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증상은 성인과 달리 주로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아가 호흡기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 기관지염증상, 천식증상과 만성기침 등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면 인후두 역류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최 근 목에 뭔가 걸린 듯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인후두 역류질환으로 진단된다. 인후두 역류질환이라 하면 다소 생소한 질환인데,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위속 위산이 식도까지 역류하여 가슴이 쓰리거나 신트림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면, 인후두 역류질환은 위산이 좀더 위로 올라와 인두 혹은 후두까지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과연, 환자수가 많아야 얼마나 많을까」 하는데, 최근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 중 20%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든 이비인후과 질환의 20%, 대학병원 두경부질환 환자 중 53%가 인후두 역류질환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정도로 환자수가 많다.

인후두 역류질환을 쉽게 알 수 있는 증상은 항상 목에 가래나 이물이 낀 듯한 이물감, 쉼 목소리, 만성 헛기침, 목안 통증, 음식을 삼키는 데 불편함 등이다. 일반적으로 후두내시경검사, 식도 운동성 및 내압검사, 24시간 위산역류검사 등을 통해 확진하며, 치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과 위장관운동 촉진제를 복용하는 약물치료를 한다.

인후두 역류질환은 평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질환이다. 위염이나 위궤양 치료가 쉽지 않듯 인후두 역류질환도 드물지 않게 재발하여 환



김 철 호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딸 아이 앞니가 뿌리채 뽑혔어요



Q 37개월 된 딸아이가 넘어져 위쪽 앞니 한 개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당황해서 「다시 넣으면 붙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끼웠는데 그러면 영구치가 자랄 때 유착이 생긴다고 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다시 끼울 방법이 없을까요?

A 치아가 빠졌을 때 30분 이내에 다시 심어서 고정시키면 90%는 다시 정착합니다. 물론 유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치아를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해 버리면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인대와 세포가 죽어 버려 다시 심는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빠진 치아는 다시 되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치아를 해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아를 해 넣는 방법에는 해 넣는 치아를 양쪽 옆 치아에 고정하는 고정식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성장하면서 치아가 심겨지는 자리(악골)는 바깥쪽으로 팽창이 일어나는데, 걸어서 해 넣는 고정식은 악골의 팽창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의 치아를 해 넣을 때는 가철성 고정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 틀니처럼 이물감이 있고, 입안에서 움직여서 나이가 어린 경우 잘 끼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드려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유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아서 앞으로 2~3년만 되면 계속 영구치가 올라 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발음의 문제는 길지 않은 시간내에 쉽게 적응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치아가 너무 일찍 빠지게 되면, 영구치가 잇몸을 뚫고 올라오기 힘들어 맹출지연이 되거나 방향감을 상실하여 덧니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인 6세경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고석민 교수)

치과 외래 031-219-5869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 예찬

최근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정민석 주임교수가 ㈜동아 사이언스에서 발간하는 과학동아에 「해랑 선생의 일기」라는 해부학 만화를 연재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생김새를 알아야 쓰임새를 깨달을 수 있고, 해부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는 해부학교실 정민석 주임교수를 만나 보았다.

만화를 그리는 해부학 선생으로 유명한데, 평소 만화를 좋아하는지?

평소 만화를 매우 좋아한다.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어릴 때 꿈이 만화가였는데, 아쉽게도 부모님의 반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추어 만화가로서 해부학 만화를 그리는 일이 즐겁고, 어릴 적 꿈의 일부를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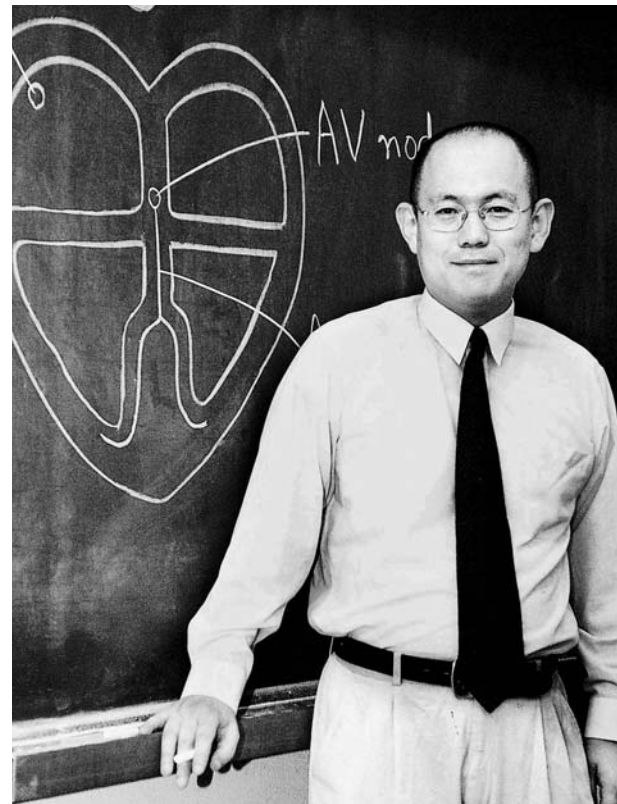
특별히 해부학 만화를 그리게 된 이유가 있다면?

해부학은 형태학이다. 즉, 사람 몸의 생김새를 가르치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보여 주면서 가르쳐야 한다.

해부학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에 가까운 그림도 필요하지만, 만화 처럼 단순화한 그림도 필요하다. 특히, 만화로 사람 몸의 생김새와 쓰임새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배가 된다.

강의도 만화(그림)를 그리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강의할 때 그리는 그림은 만화라기 보다는 사람 몸의 생김새를



아주 단순화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해부학의 모든 내용을 단순화한 그림으로 만들어 칠판에 그리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칠판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다.

단순한 그림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이 별도로 단순한 그림과 해부용 시신을 견주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

해부학 만화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부학 만화는 만화이기 때문에 단순해야 하지만, 해부학이기 때문에 신체의 특징을 담아 어느 정도 복잡해야 한다. 또한 만화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하면서도,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진지해야 한다.

이처럼 만화와 해부학 사이에서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여러 가지 해부학 만화를 그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만화들을 그리고 있나?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해부학 만화를 그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만화는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해부학 강의를 하기 위한 학습만화로, 강의할 때마다 칠판에 그려 해부학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들한테 해부학 지식을 알리기 위해 그린 학습만화가 있다. 일반인들도 의학의 가장 기초인 해부학을 공부하면, 자기 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나아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작한 해부학 학습만화는 현재 www.anatomy.co.kr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병원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해랑 선생의 일

기」라는 명랑만화가 있다. 해랑 선생의 일기는 의과대학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들에게 해부학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부학을 가르치며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 만화이다. 해랑 선생의 일기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가의 그림을 덧붙여서 2004년 과학동아에 연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만화를 그릴 계획인지?

물론, 만화 그리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만화를 그리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더욱 작업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습만화는 계속해서 열심히 그릴 것이고, 일반인을 위한 학습만화는 더 다듬어서 출판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랑 선생의 일기는 재미있는 일화를 더 모아서 그릴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을 공부하는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졸업한 후에는 후배 또는 환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 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만화처럼 쉽게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해부학 만화를 통해 해부학은 물론 의학을 좀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바란다. 무엇보다 해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부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미선/홍보팀〉

해랑 선생의 일기



아주대 해부학 정민석 교수

오늘은 학생한테 복장뼈와 갈비뼈를 설명하였다. 1

복장뼈각 옆에는 둘째 갈비뼈가 있고, 복장뼈각의 앞에는 와이셔츠의 둘째 단추가 있다. 2

빈틈없게 질문하는 학생한테는... 3

둘째 갈비뼈와 둘째 단추는 우연히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입니까?

빈틈없게 대답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4

아니다. 해부학을 쉽게 배우라고 둘째 갈비뼈 높이에 둘째 단추를 붙인 것이란다.

와이셔츠 만든 사람이 고맙네요.

1. 심방의 벽보다 심실의 벽이 더 두껍다.
2. 또한 오른심실은 가까운 허파로 혈액을 뿜어내지만 왼심실은 먼 곳으로 혈액을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심장(heart)

심장은 자신의 주먹보다 조금 더 큰 근육으로 된 육이 된 기관으로 생체에서는 혈액이 차 있다. 심장은 생이 태어날 때, 심장 박동, 심장을 그리고 면이 세 개가 있다. 심장의 주된 작용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작용이다.

심방의 벽, 심실의 벽, 허파, 오른심실, 왼심실,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심방, 심실,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심방, 심실,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근육이 두꺼워 있어 선 것과 마찬가지로 허파는 심장에서 가깝습니다.

◀◀ 해랑 선생의 일기는 아주대병원 홈페이지(www.ajoumc.or.kr)에도 연재되고 있다.
◀ 일반인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해부학만화. www.anatomy.co.kr에서 볼 수 있다.



『함께 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것 같다. 철문의 틈새로 들어오는 소식(공식회의 내용은 제외하고)은 매번 뒤늦은 소식으로 다른 병동이나 부서와 발을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병동 밖에서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눈과 틈새로 들리는 탁구소리에 10층 동병동에 대한 궁금증은 나날이 커져갔다.

한때 10층 동병동은 노처녀 군단이였다.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 꾸미지 않고, 순수한 학생 같다는 인사를 들으며 정말 학생처럼 살았다. 모두들 RN-BSN, 대학원, 평생 교육원,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을 마치며 더 나은 학생이 되어갔다. 그리고 이 열정은 병동에 고스란히 전해져 마이페이선트(My Patient) 제도와 함께 팀 접근(Team Approach)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사업사, 심리파트, 정신보건센터, 낮병원 등 여러

파트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불꽃을 일으켰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전국에서 몇 안되는 환경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친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전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과 병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고 심한 저항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정신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선입견과 편견은 존재하고 있다.

한달 정도 머무는 인턴 선생님 혹은 간호 교육생들은 『겪어보니 생각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단지 정신과 질병을 갖고 있을 뿐 나와 다를 바

없는 감정과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고 말하곤 한다. 정신질환 또한 다른 질병과 같이 마음을 다친 질병일 뿐인데 이들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과 편견이 더욱 중환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우리 병동의 큰 자랑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의 도움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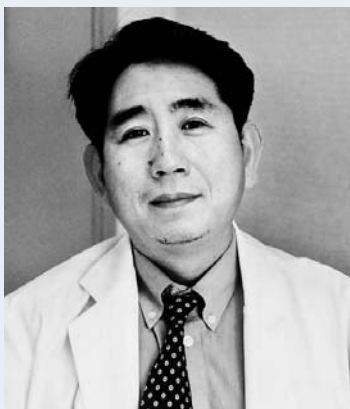
때로는 환자들의 말 한마디, 손짓에 울고 웃으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곳, 작은 공간이지만 큰 희망을 품고 있는 10층 동병동 누구에게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0층 동병동 김혜용 수간호사)

『**병**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정신과 병동이라는 작은 사회로 들어간다.

개원 이래 한 장소에서 함께 지내왔지만 폐쇄병동의 특징으로 굳게 닫힌 철문 때문에 철문 밖 사람들과는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으로 지내온

정신과 이영문 교수가 말하는 10층 동병동



아주대학교병원 10층에 자리하고 있는 정신과 병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우들의 치료에 있어 단지 환우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서의 의미보다 더 큰 치료환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치료진으로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보호사 등과 환우들이 모두 치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경치료의 개념으로 치료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치료진 각각의 분야의 의견과 필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팀 접근(Team Approach)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지 숫자상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환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치료적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팀 접근은 지금까지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 주된 치료방법이었던 일괄적인 장기입원과 수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인 치료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윤선희 간호사가 말하는 10층 동병동



『병은 치료되었는데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당분간 쉬려고 ...』

정신질환자들은 험겨운 정신질환과의 싸움 후에도 세상 사람들의 의혹과 냉대, 편견 어린 시선이 두려워 세상으로부터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해 냉대와 질타를 당하고 가족들마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정신질환은 그들의 탓이 아닌데도 말이다. 암을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듯이 정신질환 또한 그러하다. 10층 동병동은 약물치료, 인지치료, 가족치료, 재활치료 등 다양한 치료기술을 가지고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사, 자원봉사자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우리 병동을 다녀간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고 질환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자신의 몫을 다하고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우리 10층 동병동 모든 가족들의 보람이자 바람이다.



매일 재는 혈압, 이것이 궁금합니다



혈압을 재는 팔이 따로 있다?

혈압 측정을 위해 어느 팔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다. 그러나 처음 측정 시에는 좌우 팔을 모두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양팔의 혈압이 20mmHg 이상 차이가 나면 이는 질병상태를 의미하는 소견으로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 정답 : X >

혈압은 측정할 때마다 다르다?

혈압은 측정시 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혈압 측정시 금방 복도나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측정할 때는 정상인도 고혈압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 전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

같은 조건에서 측정해도 아침에 잤 혈압과 저녁에 잤 혈압은 다를 수 있다. 인체에는 24시간 주기의 변동이 있어 혈압도 아침에 측정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정답 : O >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소위 「백의 고혈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흰색의 가운을 입은 의사 혹은 간호사 앞에서 혈압을 측정시 긴장도가 증가되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 받는 사람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에서는 백의현상으로 고혈압이 아닌데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혈압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혈압을 여러 번 재어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재어 보거나 집에서 재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에서는 가정에서 재는 혈압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 정답 : O >

고혈압은 약을 먹어서 정상이 되면 더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혈압의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은 근시가 생긴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안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만 물건이 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여지는 것처럼 혈압의 치료도 약을 먹는 동안에만 혈압이 떨어진다. 물론, 약을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어 있으면 약을 끊더라도 다음날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혈압은 높아져 치료전의 혈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 정답 : X >

고혈압을 위한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고혈압이 있다고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거나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고혈압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조절할 수도 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생활습관이 개선되면 약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 정답 : X >

최 소 연 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사랑으로 섬기는 삼성산부인과병원

밝고 깨끗한 시설,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

삼성산부인과병원을 찾은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기존 병원에서 느끼기 힘든 밝고 깨끗한 이미지에 놀라고, 가족처럼 따뜻한 서비스에 또 한번 놀란다. 그것은 신뢰받는 병원, 사랑이 넘치는 병원, 연구하는 병원으로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과 화랑과 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주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밝고 깨끗한 시설과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삼성산부인과 병원은 2000년 10월에 수원 영통의 중심상가에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7명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마취과 등을 진료하는 100여명의 식구를 둔 병원으로 성장하였다. 생명탄생의 현장, 그 가장 가까이에서 진심어린 따뜻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바로 삼성산부인과병원이다.

지역 의료계의 역동성 주도

삼성산부인과병원은 시험관아기 및 불임클리닉, 내시경 수술센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출산문화와 다양한 분만 환경을 구비하여 전문화된 진료를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가장 친절한 병원으로서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04년 4월 현재까지 시험관 아기 성공 158건과 부인과 내시경 수술 956건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 내막증 등의 부인과 질환을 첨단 장비와 최고 수준의 숙련된 의료진을 통하여 개복하지 않고 단기간의 입원기간과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내시경 수술을 함으로써 많은 부인과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DRG(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내시경 수술에서 따를 수 있는 고비용 문제까지 해결하였다.

또한 유방암 정밀 검진체계를 갖추어 여성암의 조기진단에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성산부인과병원은 부인과 분야의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진료로 많은 환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지역 의료계의 역동성을 주도해 오고 있다.

가족 축제 분위기의 출산문화를 위한 서비스

건강한 아기를 아무 문제없이 잘 낳고자 하는 모든 산모와 가족들의 공통된 소망을 위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진단을 위한 정밀 초음파, 입체 초음파실과 의료진확보를 통한 최상의 진료수준을 마련하고, 자유진통실을 만들어 여러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수중분만이나 태아의 골반 통과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수원지역



유일의 그네분만 등 다양한 분만방법을 통하여 분만의 두려움을 최소화하여 줄여주고 있다.

종전의 가족과 고립된 상태에서 분만하던 것과 달리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 속에서 자유스러운 자세(좌식분만 등)의 분만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을 피하고, 성공적인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자동실의 환경제공과 모유수유교실 등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다양한 여건까지 조성해 줌으로써 가족 축제 분위기의 출산문화 변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마음으로 섬기는 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많이 세워지고 친절의 목소리는 크지만 삼성산부인과병원은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포장보다는 고객의 어려움과 환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하며 도와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잃지 않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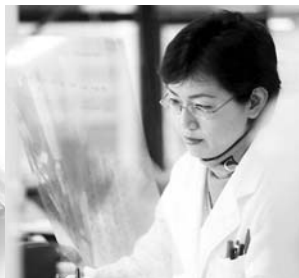
김 영 배 팀장 / OI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를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2명	12,000,000원	16,269,000원
누계	344	1,834,975,531원	1,796,163,33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의료원 납입분>

강원형	10,000,000	큐피부와 원장, 피부과 외래교수
아라코 장례식장	1,800,000	협력기관(추가후원)
이종철	1,000,000	의과대학 이승엽 학부모
한통기획	100,000	외부 후원자(추가후원)
○○○	100,000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교직원 분납분	4,369,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4.3.25~4.26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4295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계시판

희귀병 아동 돕기, 제5회 꼬마 마라톤대회 개최



희귀병 아동을 돕기 위한 제5회 꼬마 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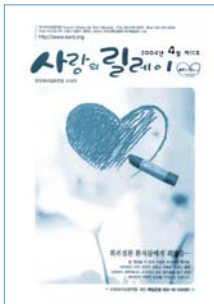
꼬마 마라톤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부천시 중앙공원 자전거 도로 및 야외 음악당 무대에서 부천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의 자전거 도로(조깅코스) 한 바퀴(1.6km)를 도는 약 20여분이 소요되는 마라톤대회와 이날 모금된 기금을 한국희귀질환연맹을 대표하여 참석한 김현주 회장(아주대학교병원 유전학클리닉 교수)과 희귀병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매년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행사 당일 그동안 저금하여 온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전하고 있다. 작년에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기부하였으며, 올해는 희귀병 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시지회 주최, 부천시·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한국희귀질환연맹(KARD)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국희귀질환연맹, 「사랑의 릴레이」 발행



한국희귀질환연맹(회장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이 소식지, 「사랑의 릴레이」 2004년 4월(제11호)를 발행·배포했다.

이번 호는 2003년부터 연맹의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여건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해 준 「로또공익재단」의 소개와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사업 소개를 특집으로 다뤘다.

<한국희귀질환연맹 031-216-9230 / www.kard.org>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내과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동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정환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클리닉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한증, 수족냉증, 대상포진성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근, 두통, 교감신경허약증	★
	일반진료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근 등 알성통증 기타	
	김영옥	4743	목		유방질환, 난치성 소화기 질환	★
유방클리닉	정용식	4743	월, 화, 토*	월*, 목	유방질환	★
	윤태일	4743	수, 금	월*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
	*은 밤모퉁이 시술만 시행					
학습및 발달장애클리닉	신유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수, 금	심리검사프로그램	

진료과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수, 목	★
			왕희정	5753	금	화, 금	★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
순환기내과	심부전 및 관상동맥질환클리닉	5717	신준한	5973	화	★	
호흡기내과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	
말초관기내과	발목(근종독)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혜심	5905	월, 금		
		5902	남동호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흉부외과	하지 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심	5664	해외연수중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금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화(1주, 3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고석민	5869	화	수	
		5869	황병남	5957	금	월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5월1일 현재>

진료과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학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심성준			화	소화기질환	★
	김중수			월	소화기질환	
	최준혁			금	소화기질환	★
	임태영			목	소화기질환	
	최혜진			수	소화기질환	★
	순환기내과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혈관중재술	
신준한		5975	월, 목	화	관상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고승		5975	목	월, 목	부경맥, 심방기생리질환, 전극도자결핵,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혈관중재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혈관중재술	
최태영		5975	금		고혈압, 심장질환	★
최병주		5973	토		고혈압, 심장질환	
최정현		5973		월	고혈압, 심장질환	
황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암, 갑상선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호흡기내과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목	화	폐결핵, 만성폐질환, 폐암, 만성기침	
	박주현	5968	금, 토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최영인	5968		수, 금		★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서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과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이형숙	5961	수, 금	화	내분비대사질환	
	일반진료	5961	토	수	내분비대사질환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수,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희준			화, 목	신장질환	★
외과	송영수		토	수	신장질환	★
	일반진료	5971		금	신장질환	★
장내과	김효철	5992	수, 금	화	항문, 괄약근,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이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혈압	
	최진희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혈압	
	박준성	5992	월, 화, 목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영상의학과	일반진료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박혜심	5905	월,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비뇨기과	남동훈	5905	화, 토	화, 목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영상의학과	일반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질환	
					*는 관절염센터 진료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진료과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월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지체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월,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목,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목,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5621	월	목, 목,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5621	목, 토	목,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석호정	5621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유재은	5621	금	화	소아일반질환, 미숙아질환	
	김연희	5621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반진료	5621	목, 토	수		
	토요일은 특진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혈관질환	
	이필후	5657	월, 토	화, 수	파킨슨병, 운동장애, 뇌혈관질환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목, 금	뇌혈관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유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언어장애	
일반진료						
피부과	이성낙	5912	화(예약), 목(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2	월, 화, 목	화(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5914	월, 화, 목	화(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예약), 목	백반증, 무좀, 접촉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이지연				월(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외과	김명옥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풍양, 탈장, 폐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김목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정용식	5753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윤태일	5753	유방클리닉 진료	수	유방질환		
김홍	5753	토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5753	토	화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
	최 호 5750	화	화, 목	폐·식도의과, 다관중, 하지정맥류	★
	강준규 5750	목	금	심장혈관외과	★
5717	이상수		월, 수	폐·식도의과	★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 목, 		척추외과, 족관중,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토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토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기느리는 수술), 외상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중,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심숙영	월, 토		뇌종양, 외상, 일반신경외과	
허지순 5663		월, 수	척추질환, 외상	★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토	화	미용성형	
5614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 	월, 수,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예약), (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토	화	각막, 백내장, 외안부	★
	문찬식	수, 토		망막, 초자체, 백내장	
5673	일반진료	월-토	월-금		
이비 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 수, 목, 금	월, 목	중이염, 난청(유전성 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수, 목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수, 토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5747	이준호	토	월, 목	난청, 부비동염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5585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토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강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
	일반진료	목, 금, 토	수, 목		★	
	재활 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수,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	
5802	윤승현	월, 목, 금	화, 수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	
일반진료	화	목				
지남사 선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혈액응고장애 치료, 폐렴관리, 후각장애 치료		
	5823	일반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방사선 종양학과	전미선 5884	월, 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5884	오영택 5884	월, 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5884	강승희 5884	월, 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학 과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5930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산업의학 과	이경중 5645		화	직업성 질환		
5644	박재범		목	직업성 질환, 직업성인간공학		
5606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직업성 질환		
가정 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셋별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5959	일반진료 4808	월-토	월-금		
치과	황병남 5869	화* , 목* ,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 수, 목*	화* , 수* ,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5869	고석민 5869	월* , 화, 금*	월* ,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일반진료	월* , 토*	수*	재진환자만 가능	★	
				*는 별도 예약 <small>☞</small> 토요일은 특진과수가 과제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중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6001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